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황해도민속범몰이편)



기 간 : 1986. 10. 17~10. 18 (2일간)

장 소 : 충남천안시 오룡경기장

주 최 : 문공부 · 문예진흥원 · 예총 · 문화원연합회
(주) 문화방송

주 관 : 충남도 천안시 예총충남지부
문화원연합회충남도지부

범몰이유래

황해도 범몰이는 단절된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하고 오늘의 놀이로 복원하기 위하여 현재 황해도 봉산탈춤연수원장이신 김유경씨의 고증과 수정을 통하여 1984년 6월에 국립극장에서 첫 발표회를 기점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놀이는 음력 정월 열나흘날 황해도 봉산군 토성면 나산리를 중심으로하여 연희되었던 놀이로서 옛 조상들이 농사를 짓는데 호랑이의 피해가 컸음으로 그 호랑이를 달래고 농토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던 실제생활을 놀이화한 작품으로 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뜻에서 행해졌던 일종의 마을공동제 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놀이를 즐겼다는 역사적인 유래는 확실하지는 않다. 국토분단으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훌륭한 세시풍속이 단순한 제의식이 아니라 공동의 축제와 문화행사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호돌이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놀이로써 연연히 계승되어져야 할 것이다.

김유경 업적

- 1925년 (당시 18세, 황해도 봉산탈춤을 시작) 김무연씨로부터 사사, 60년동안 황무지인 민속극을 발굴.
- 1957년 고 이승만대통령 생일날 경복궁에서 대공연 이후 최초의 민속극을 개척 후진양성에 힘써 오다가
- 1984년 5월27일 범몰이공연(국립극장)
- 1984년 6월 4 일 범몰이공연(국립극장)
- 1984년 8 월 엘에이(L.A) 선수단 환영식 공연(KBS 체육관)
- 1984년 9 월16일 범몰이(효창운동장) 공연
- 1984년11월11일 범몰이 공연(문예회관대극장) 발표회
- 1984년11월13일 범몰이 공연 2 회(국립극장)
- 1984년11월14일 K. B. S주최 풍년제 범몰이공연 3 회(동회사 체육운동장)
- 1984년11월 일 잠실체육관 개관기념 범몰이 공연 2 회
- 1984년11월 영동시장 개관기념 주최 범몰이 공연
- 1984년11월20일~22일 범몰이 공연(동방푸라자)
- 1985년 5 월15일 청소년공연 예술제에서 범몰이 공연 및 탈춤공연(중앙국립극장)
- 1985년 7 월12일 범몰이 공연(문예대극장)
- 1985년12월29일 KBS 범몰이 녹화
- 1986년10월현재 황해도민속예술연구원개설 운영중

황해도 범몰이 概要

첫째 마당 : 길놀이

악사들中 징잡이가 징을 치면 동네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든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횃지게를 지고 나와서 길놀이를 하며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풍물과 才談으로 한 바탕 논다.

둘째 마당 : 산신굿

길놀이가 끝난 후 범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에는 악사가, 그뒤에는 만신, 이어서 마을사람, 그리고 그 주위를 횃불 든 사람들이 에워싸고 산신당에 당도한다. 도착 후에는 악사와 횃불을 든 사람이 반반으로 나뉘어 서로 엇갈려 돌다가 반씩 갈라져서 산신당 옆으로 열을 지어선다. 차담을 차려놓고 산(生)돼지를 재물로 바치고 만신의 산신굿이 진행된다. 산신굿이 끝나고 마을로 내려오면 재물로 바친 산(生)돼지를 범이 얼러서 물고간다. 산신굿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가. 차담 차리기

나. 부정걸이 (주당거리를 읊는다) : 이때 차담거리에서 음식을 조금씩 떼어 주당상을 따로 차린다.

다. 만세받이 (산천거리를 읊는다) : 만세받이가 끝나면 산신당을 향하여 三拜焚香한다. 焚香이 끝나면 바라를 들고 나라 祝願을 한다.

라. 나라祝願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짐)

마. 일대동祝願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짐)

바. 降神춤 : 산신령의 地位를 받아 춤을 춘다.

사. 공수

아. 축원만세

세째 마당 : 횃불 싸움

싸릿가지, 마당비등으로 만든 횃불을 들고 막 떠오르는 보름달을 배경으로 악사들은 신나게 자진가락을 쳐대고 불꽃이 난무하며 함성이 하늘을 찌를듯한 대장관이다. (본 발표회에서는 인원부족으로 생략)

네째 마당 : 밭갈이

악사와 횃불잡이가 등장하여 밭을 둘러 싸면서 자리를 잡으면 풍물을 울리고 횃불잡이는 호랑이의 접근을 막기 위해 풍악에 맞추어 횃불을 움직인다. 암소와 황소가 짝을 이루어 쌍쟁기 같이 한다.

다섯째 마당 : 종자심기

황해도 특유의 종자심는 방법으로 뒤웅박 2개를 붙인 박통에 긴 나무막대를 꿰어 만든 播種器를 들고 勞動謠(난봉가)를 부르며 종자가 잘 심겨져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다.

여섯째 마당 : 김매기

이때 부르는 소리는 섬마 타령이다. 이 섬마타령은 농민들이 일하며 힘드는 숨결로 恨을 풀기 위한 소리로서 장단을 맞출 수 없는 무장단소리인 것이 특징이다.

일곱째 마당 : 추수

낮을 들고 옆으로 줄줄이 서서 산염불을 하면서 추수를 한다.

여덟째 마당 : 타작

추수한 곡식을 모아놓고 마당에서 도리깨질을 하여 타작을 한다. 이때 부르는 소리는 “방아타령”이다. (이때 방아타령은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운율에 맞추어 변한다)

아홉째 마당 : 놀랑(뒷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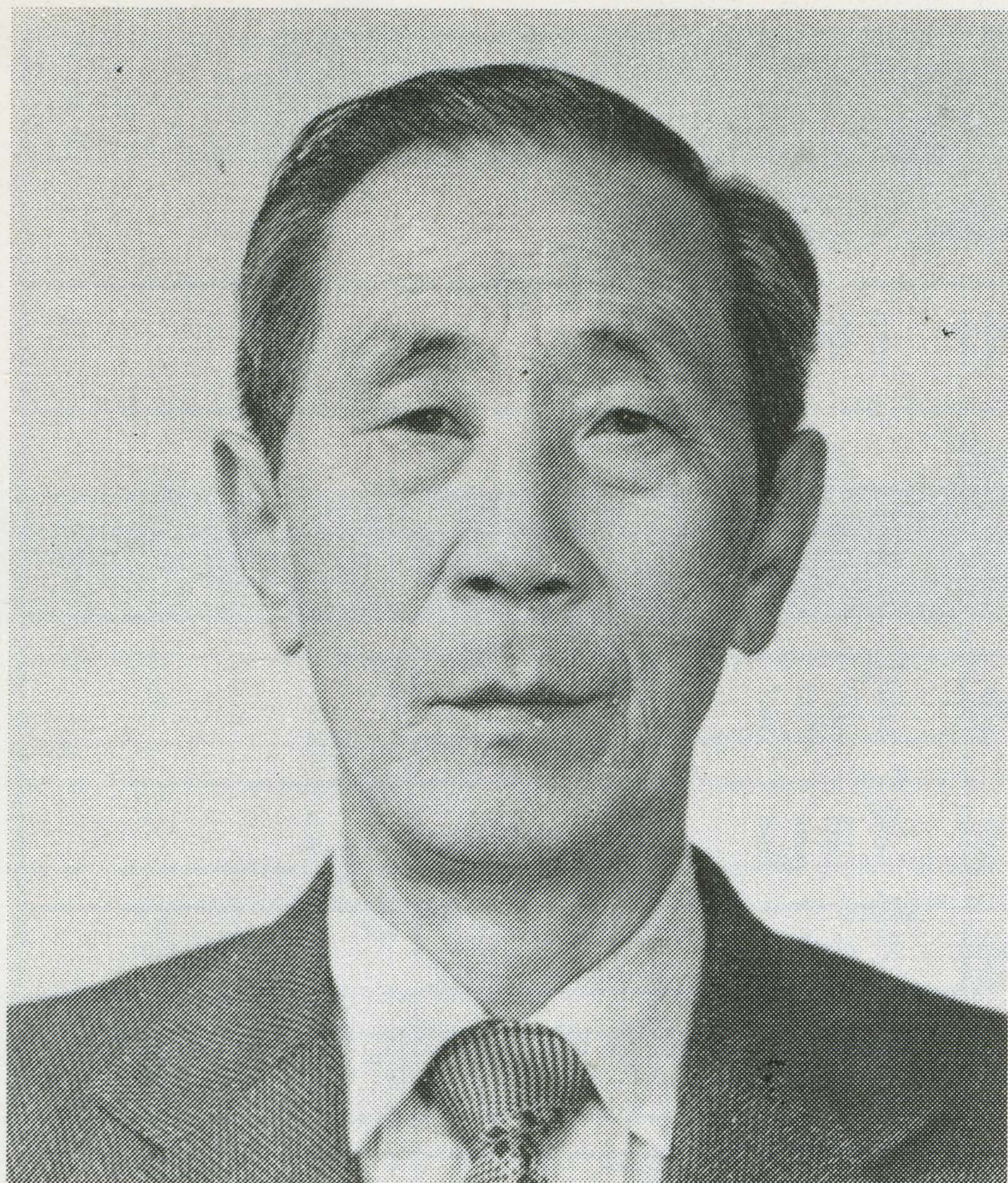
일종의 뒷풀이로 놀이에 참가했던 호랑이, 소, 인간이 모두 한판 신나게 어우러지는 마당으로 自然合一思想과 풍요로움을 기리는 질펀한 한판의 축제적 성격을 띤다. 범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 넘어 범과 人間이 한판 어우러 지는데서 우리 옛 조상들의 대범함과 삶을 인식함이 윤택하고 여유있음을 느끼게 된다.

출 연 자

〈무순〉

구 분	성 명	연 령	성 별	담 당	역
1	김 유 경	79	남	고 증	(대표자)
2	박 혜 일	69	남	징	
3	이 태 숙	61	여	(농군)	도리깨
4	강 한 용	68	남	진 행	
5	김 순 식	70	남	보쟁이	(밭갈이)
6	박 계 순	59	여	만 신	
7	유 재 덕	60	여	만 신	
8	김 대 자	48	여	(농군)	종자심기
9	박 영 자	51	여	(농군)	종자심기
10	이 종 녀	47	여	(농군)	종자심기
11	심 상 순	46	여	(농군)	종자심기
12	성 하 순	51	여	(농군)	종자심기
13	문 중 호	45	남	피 리	
14	정 재 진	34	남	앞 범	
15	한 순 서	46	여	장 고	
16	정 춘 자	44	여	상 쇠	
17	신 택 기	27	남	앞 범	
18	이 명 상	72	남	징	
19	방 인 근	45	남	대 금	
20	강 영 하	25	여	(농군)	종자심기
21	이 경 은	13	여	범 (앞)	
22	조 관 임	40	여	(농군)	도리깨
23	이 정 숙	56	여	만 신	
24	여 연 하	35	여	상 쇠	
25	권 현 오	50	남	소 뒤	
26	김 완 수	29	남	깃 발	
27	정 경 숙	24	여	(농군)	종자심기
28	이 상 설	58	남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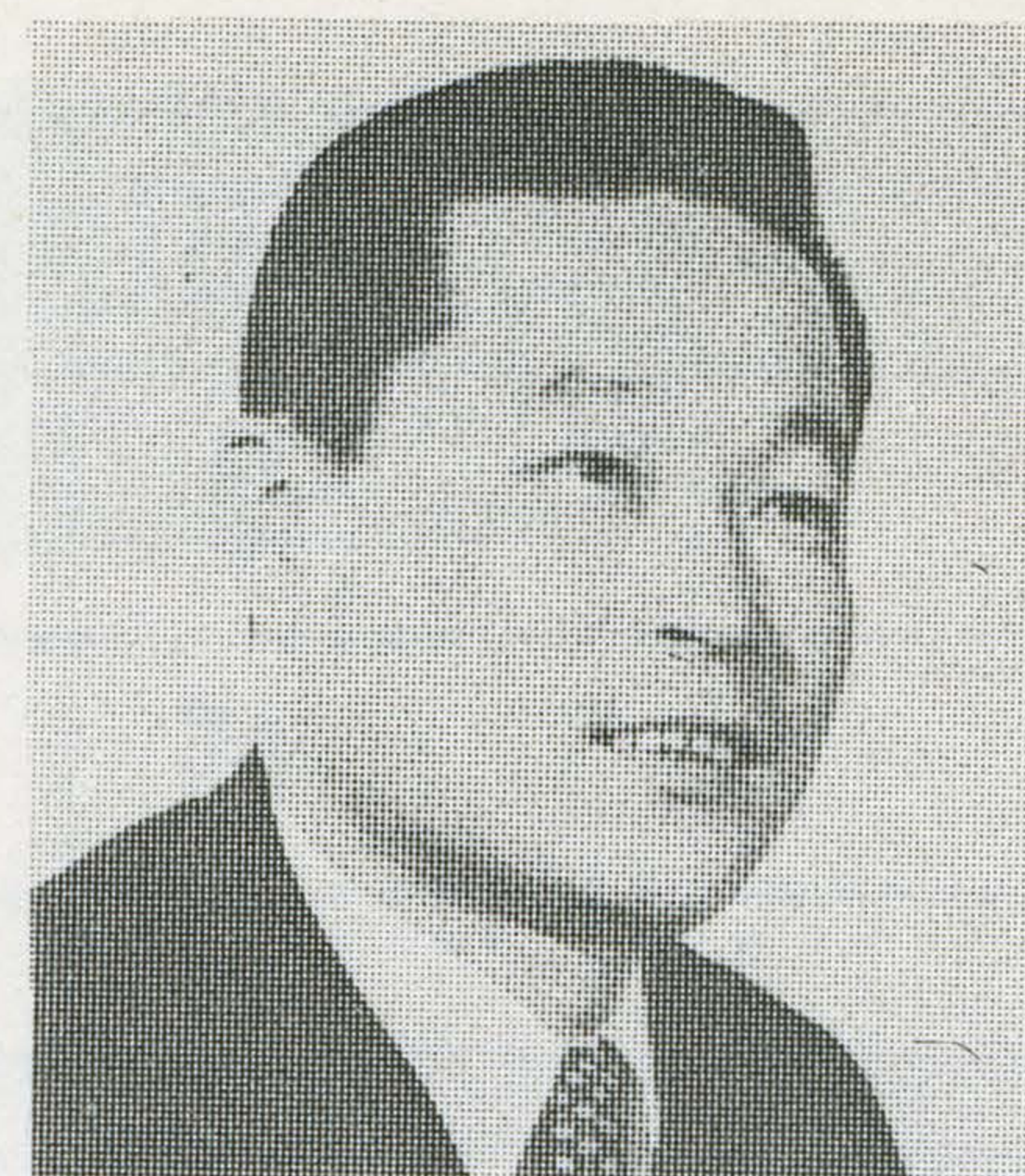
구 분	성 명	연 령	성 별	담 당 역
29	김 세 동	24	남	소 (앞머리)
30	박 영 혜	13	여	범 (뒤)
31	이 은 이	13	여	새 끼 범
32	이 승 직	25	남	범 (뒤)
33	이 진 생	24	남	범 (앞)
34	정 윤 조	21	남	범 (뒤)
35	강 승 범	22	남	범 (앞)
36	이 승 훈	24	남	범 (뒤)
37	김 수 겸	21	남	햇 불
38	김 복 순	48	여	도 리 깨
39	변 후 식	70	남	햇 불
40	전 봉 려	45	여	김 매 기
41	지 금 례	44	여	김 매 기
42	김 련 수	45	여	김 매 기
43	김 화 윤	45	여	김 매 기
44	한 근 애	47	여	김 매 기
45	김 용 태	55	남	햇 불
46	김 용 수	24	남	햇 불
47	이 성 렬	22	남	햇 불
48	이 창 훈	23	남	햇 불
49	성 민 호	24	남	햇 불
50	박 현 철	23	남	햇 불
51	이 재 용	22	남	햇 불
52	김 현 희	13	남	새 끼 범
53	민 경 빈	35	남	도 리 깨
54				
55				
56				



대표자 김유경



이태숙



박해일



김상설



김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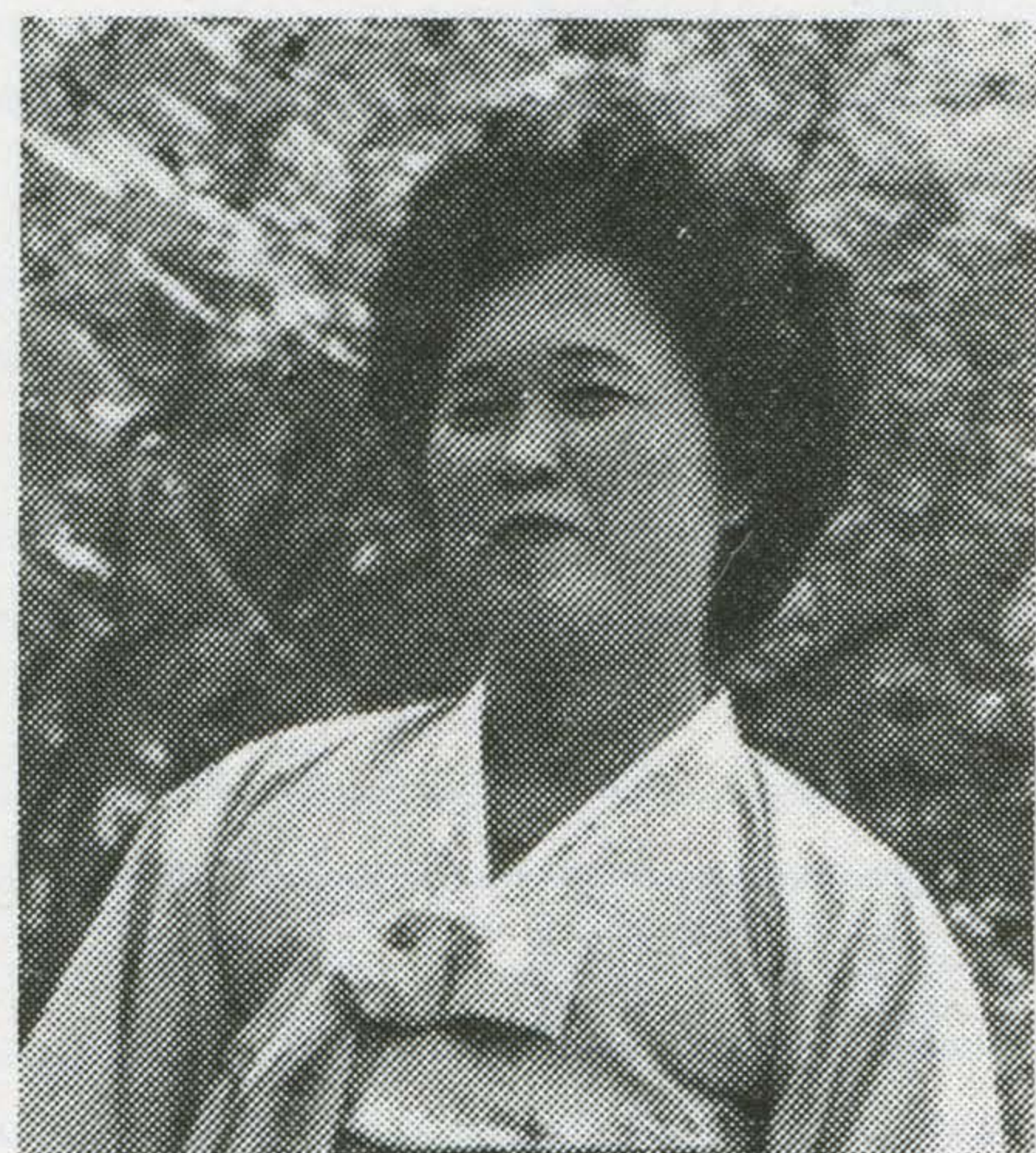
이명상



한순서



정춘자



김복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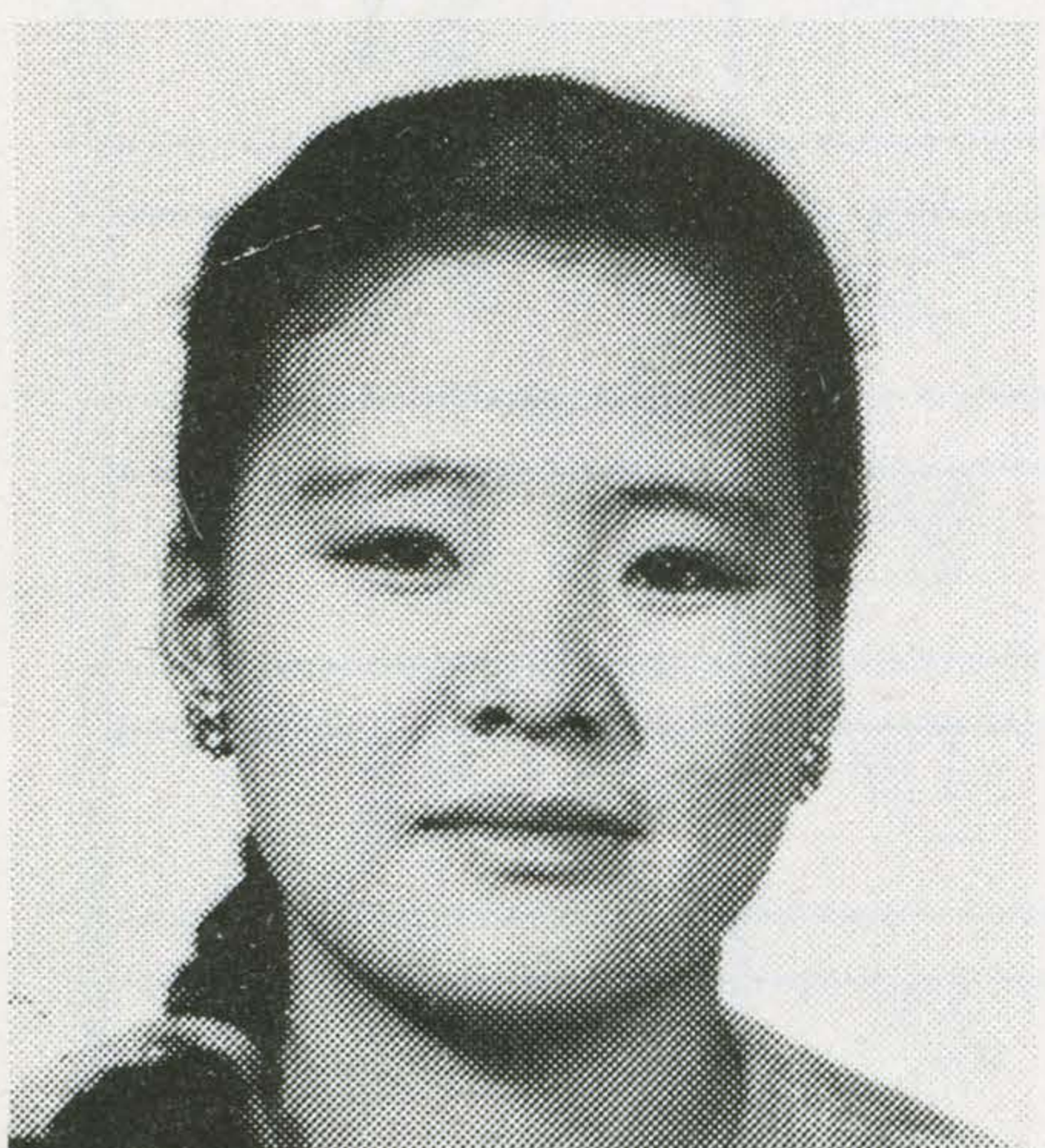
김대자



이종녀



성하순



정경숙



심상순



박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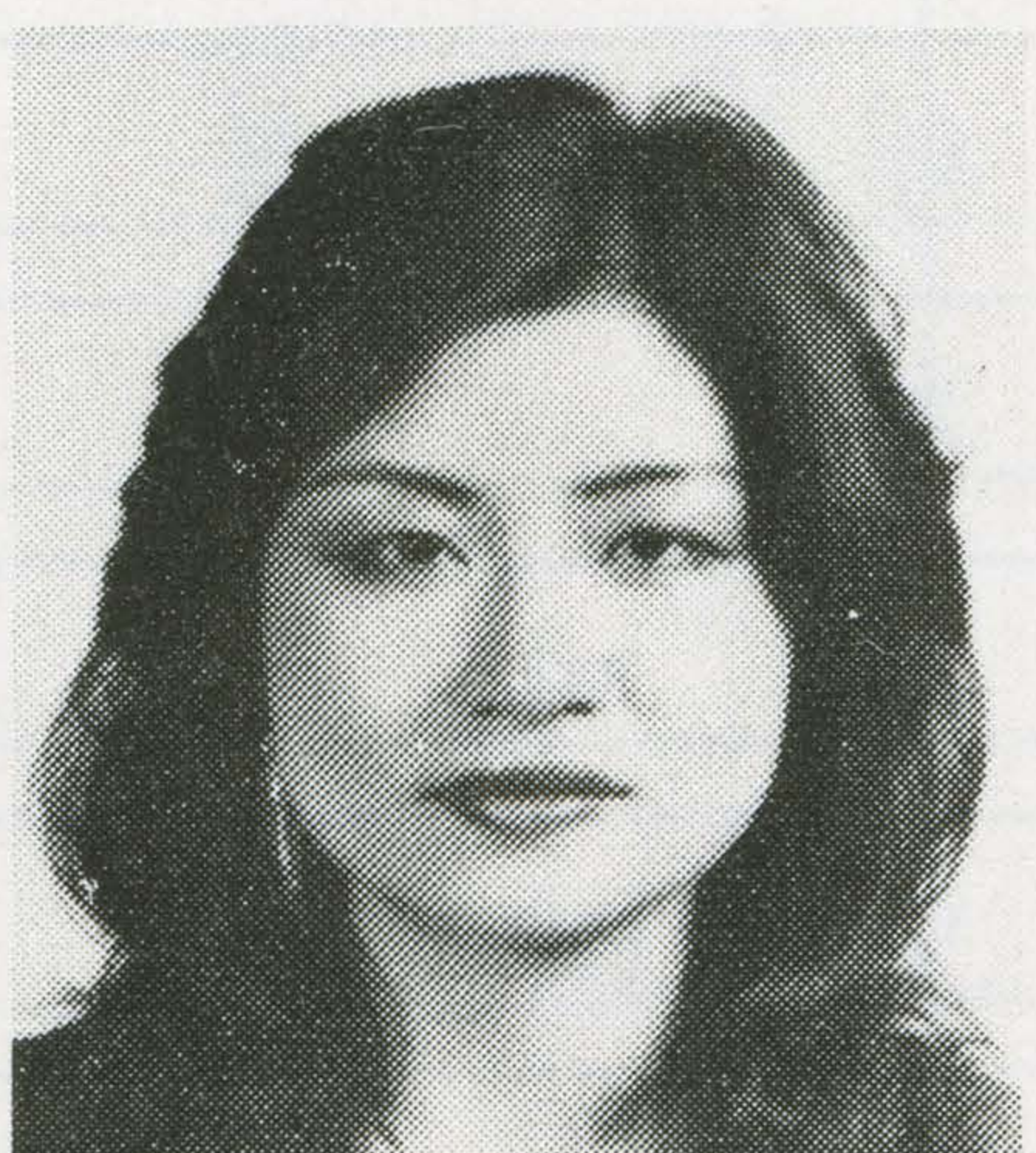
김연수



한근애



정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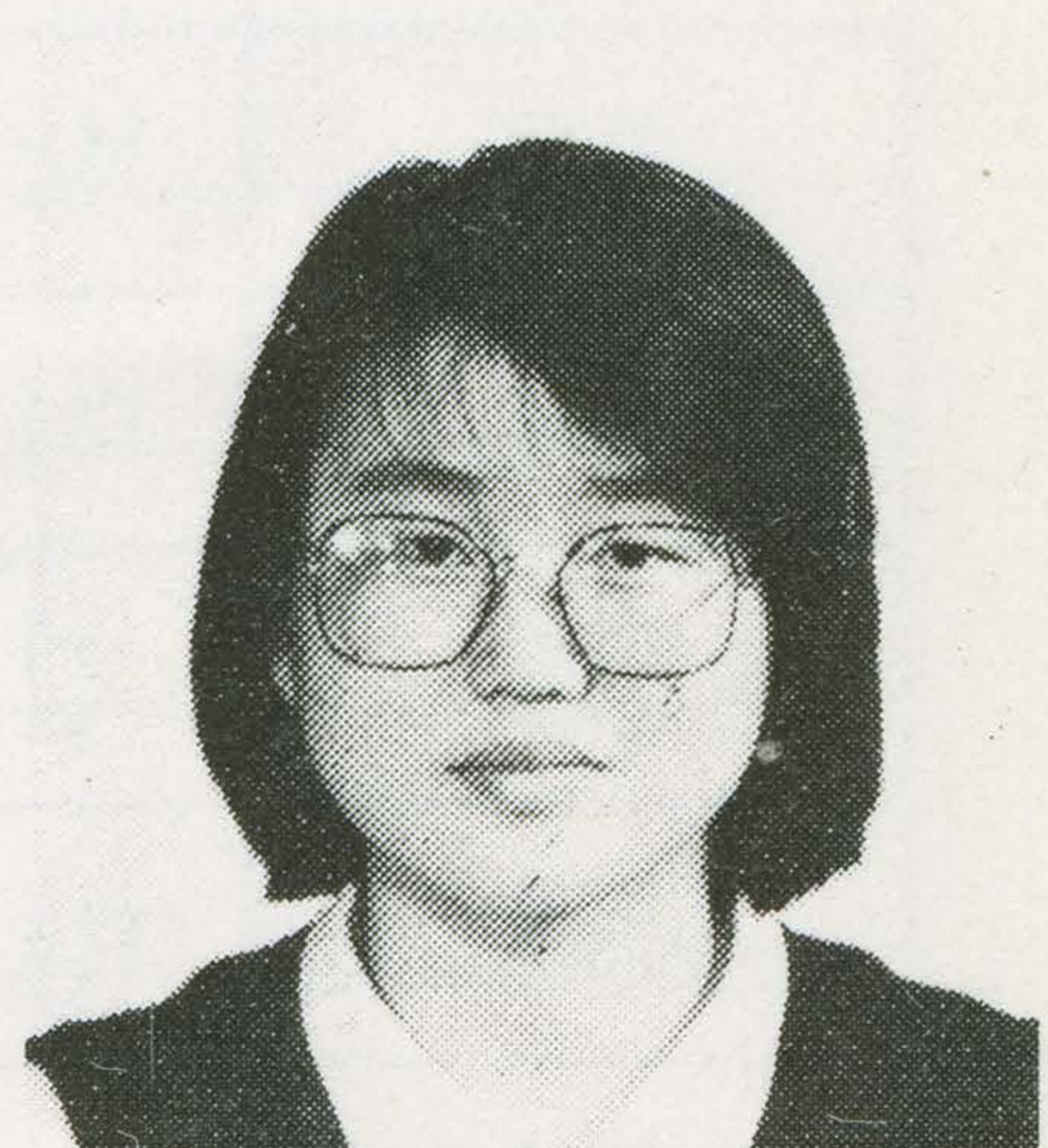
강명화



전봉애



지금례



백현정



김화운



차금려



박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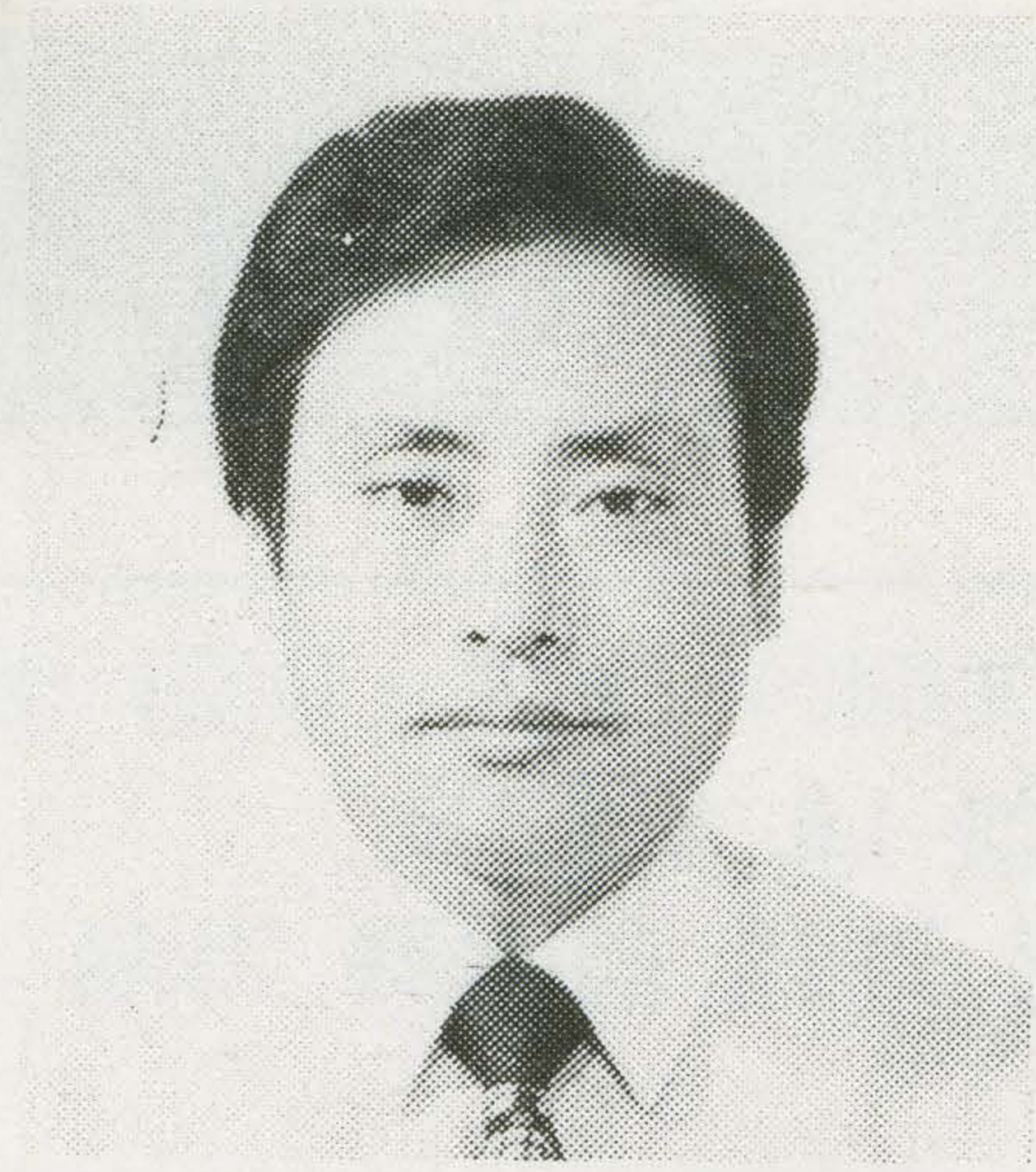
유재덕



노선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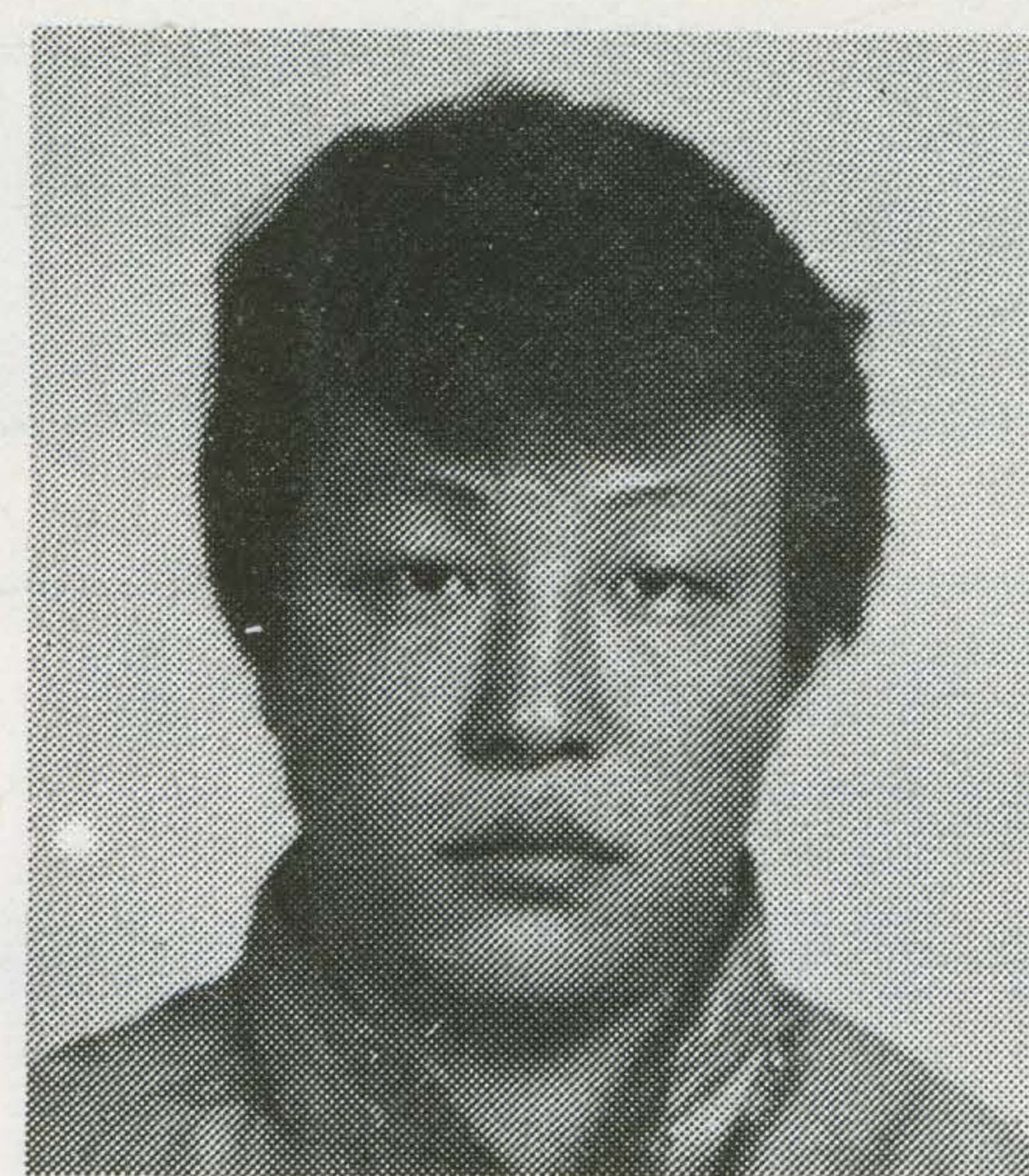
이 정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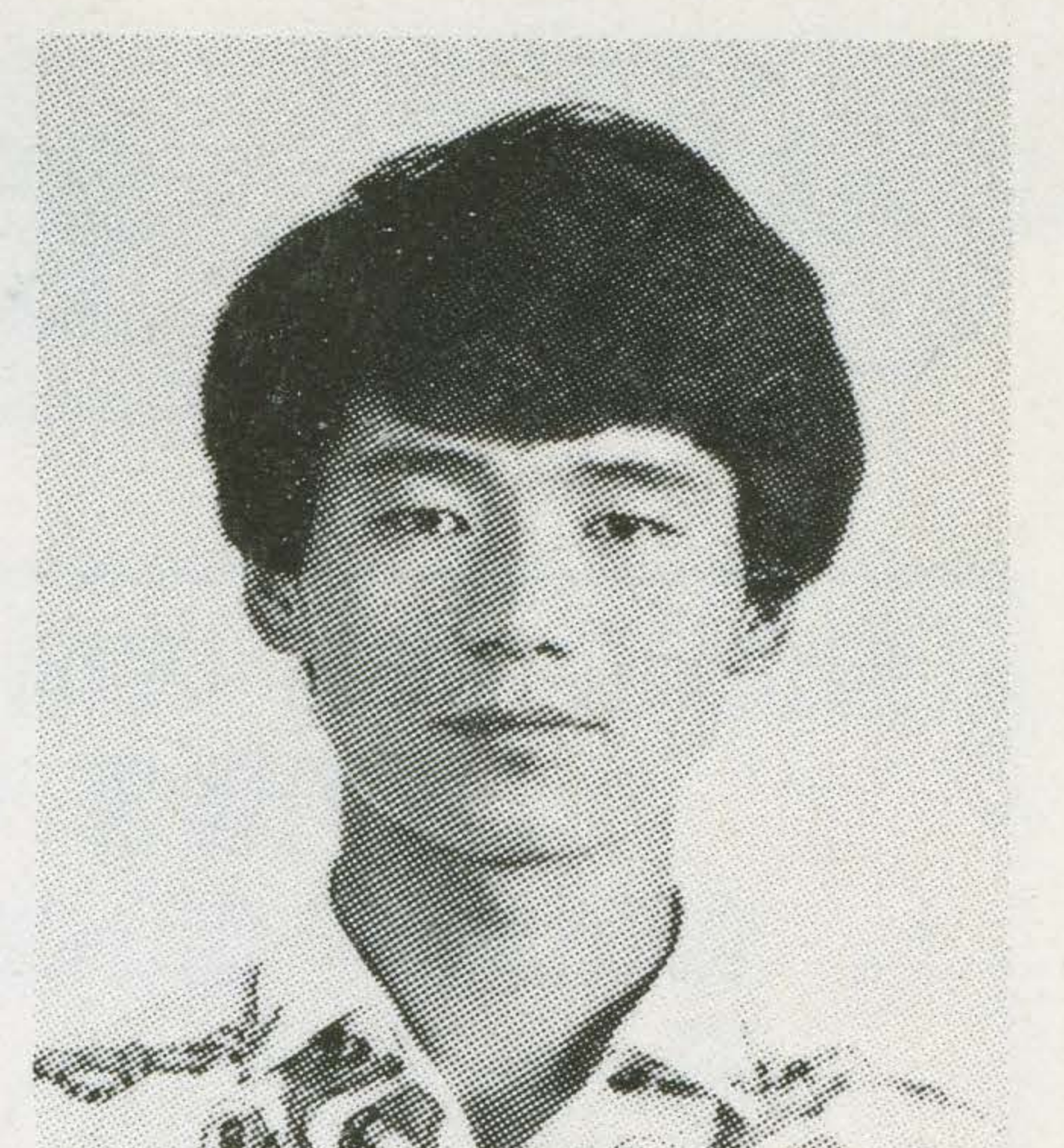
문 종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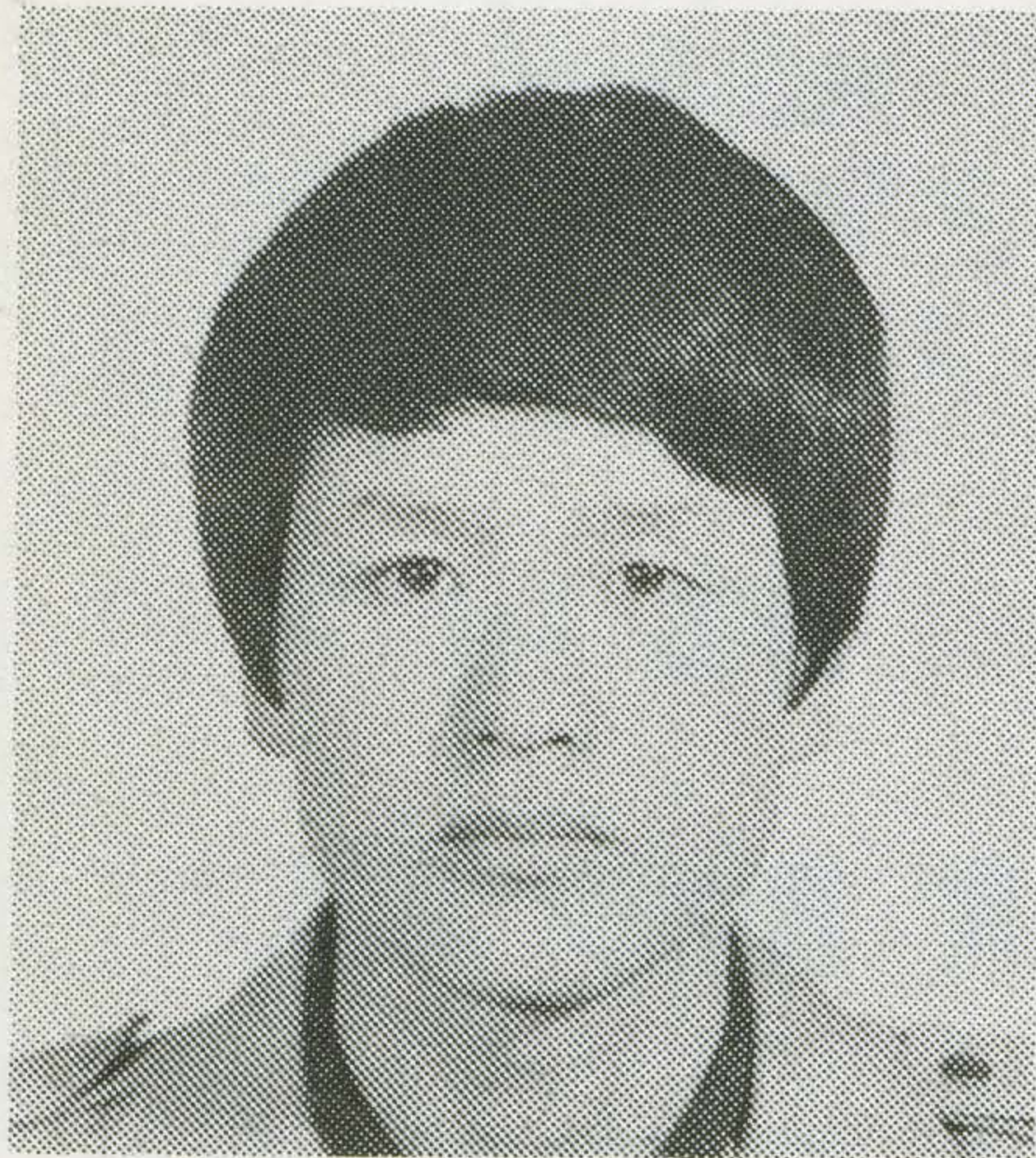
조 판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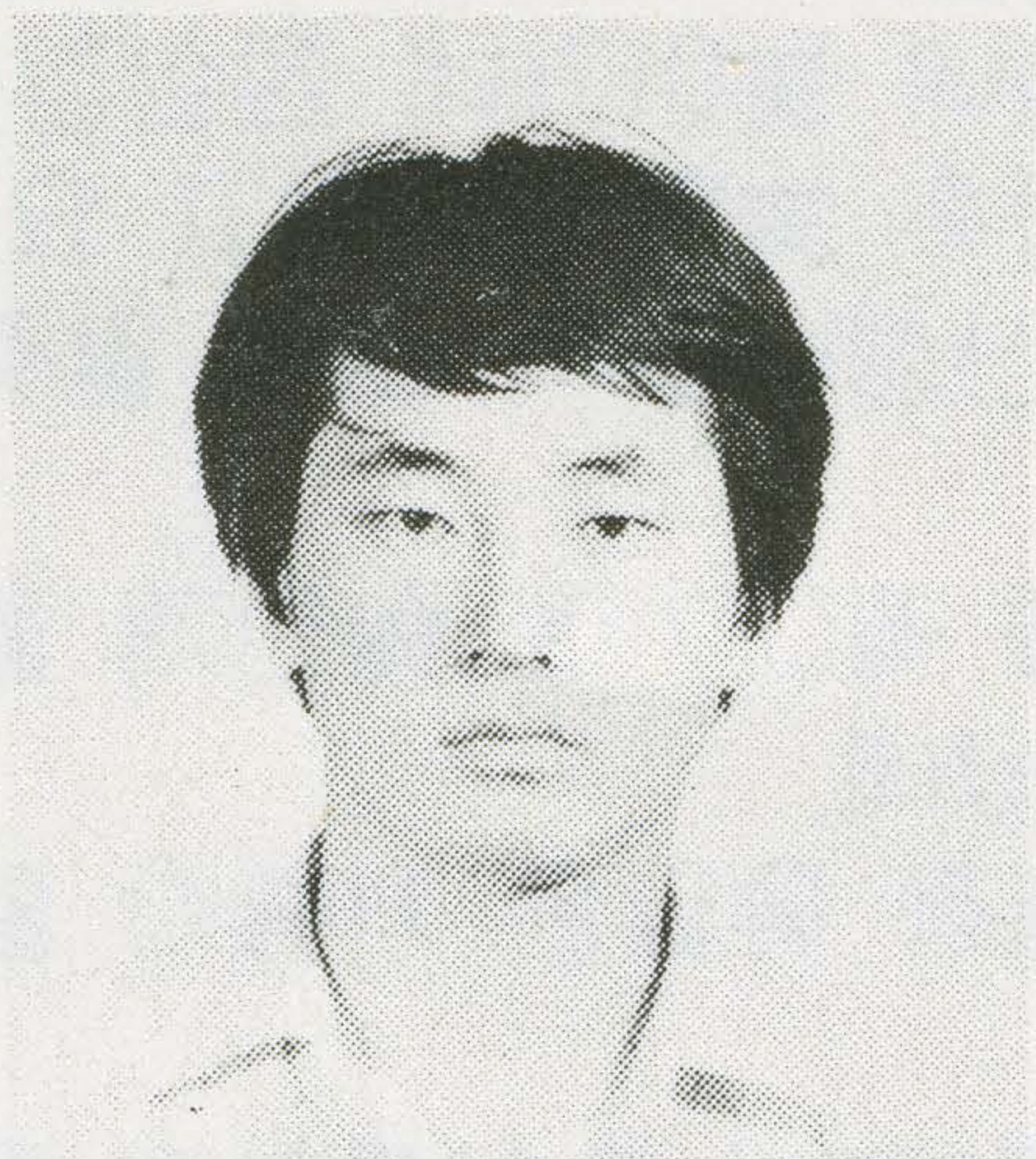
김 세 동



신 택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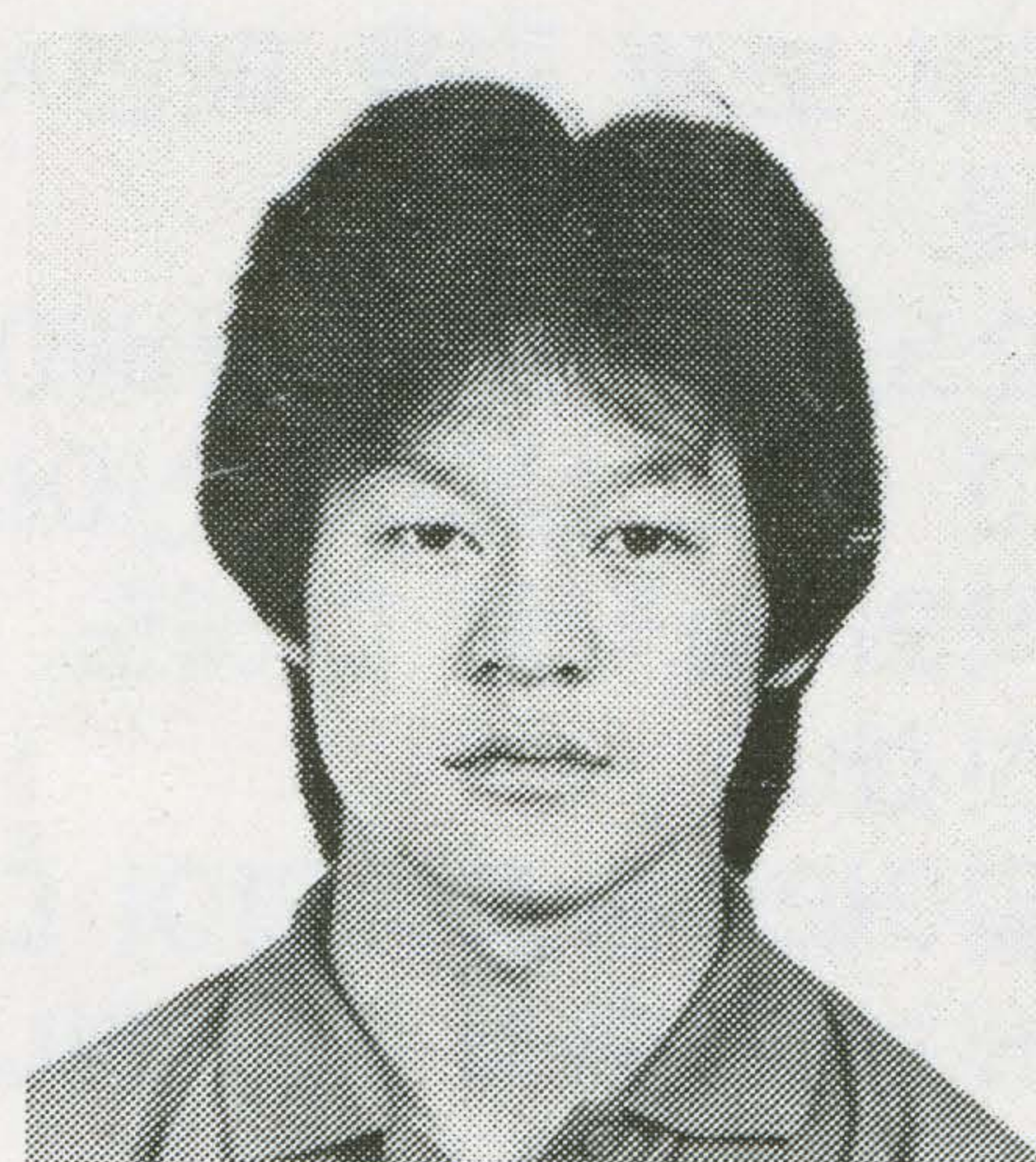
김 성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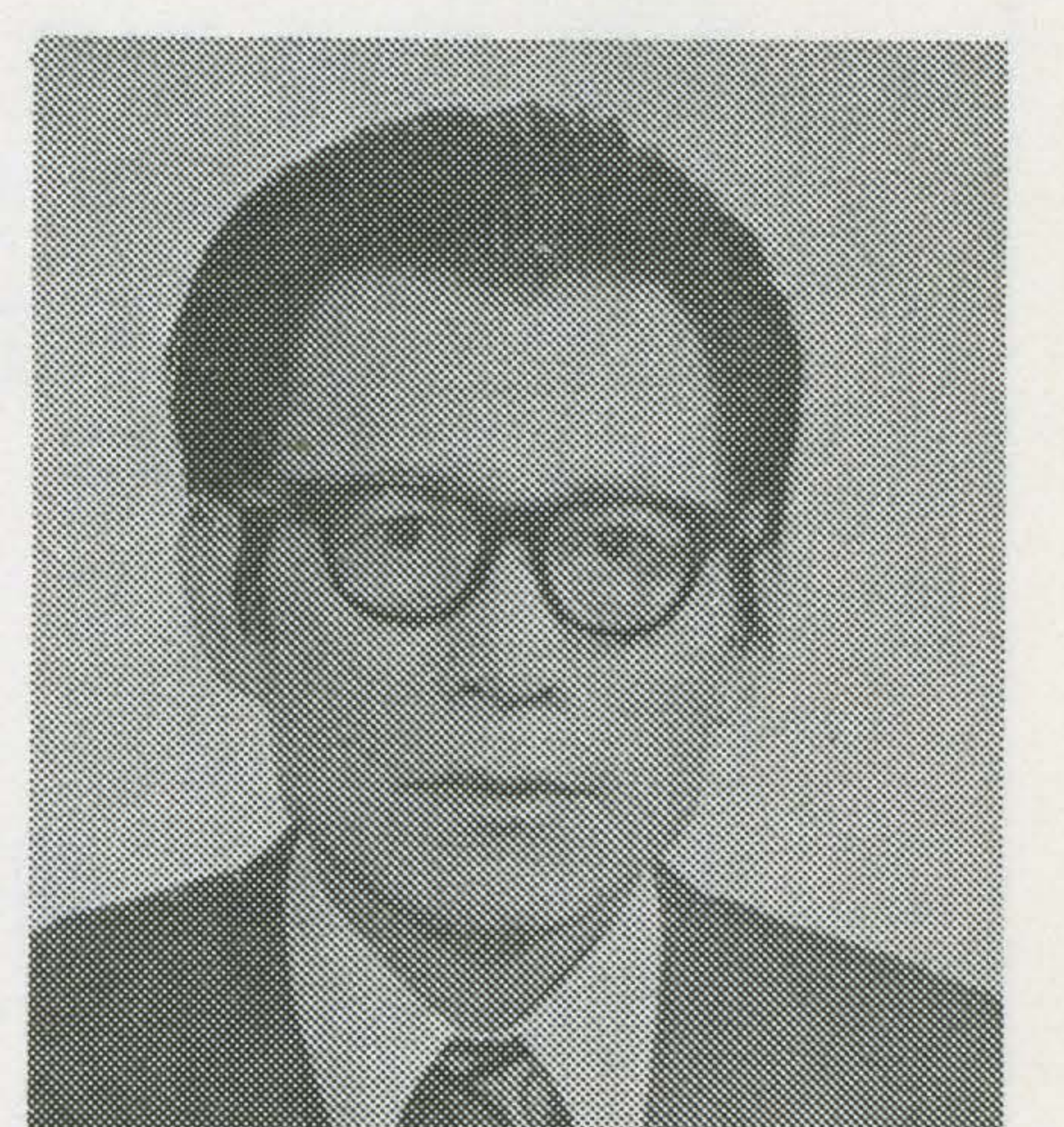
이 흥 직



박 영 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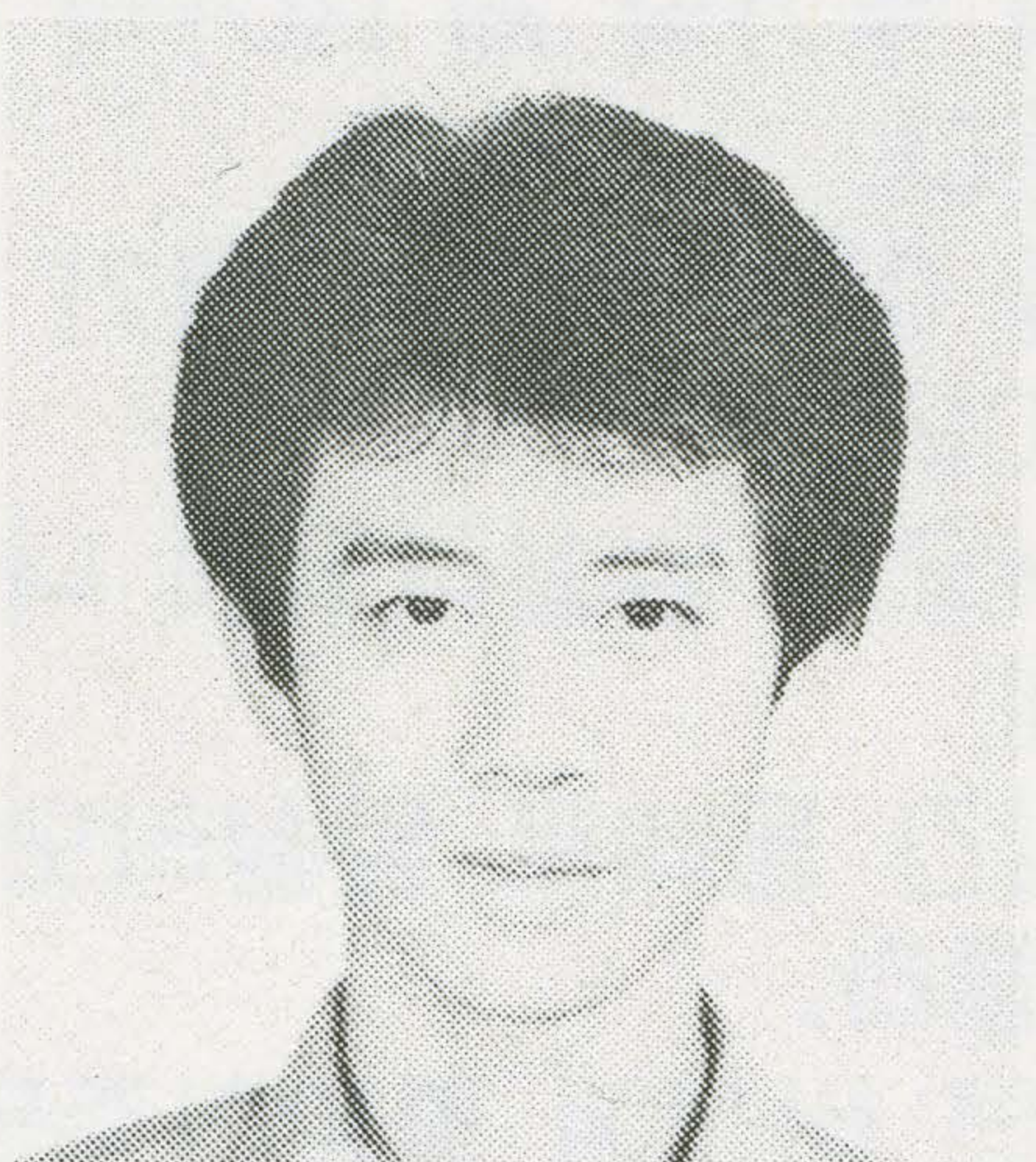
이 승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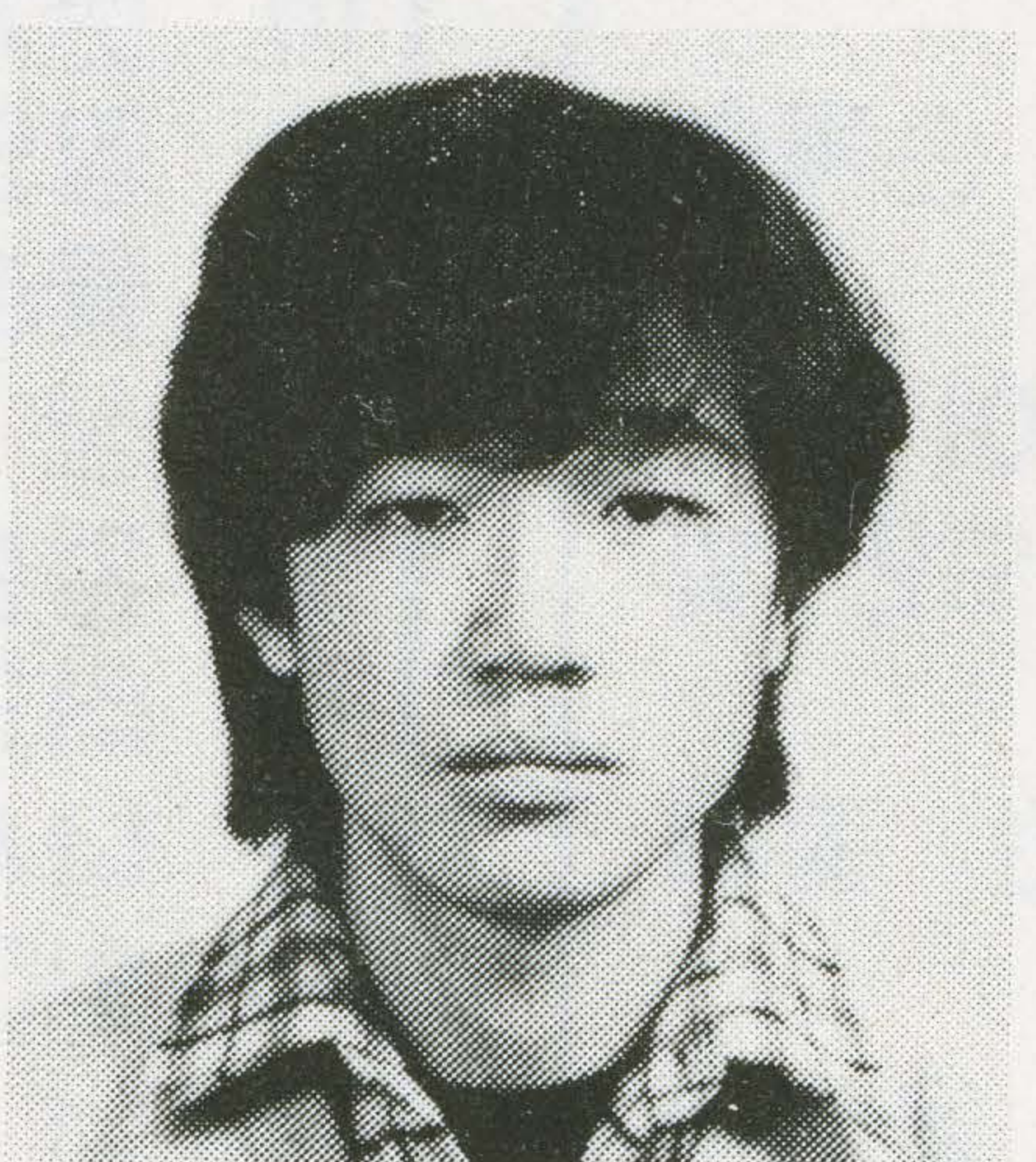
김 수 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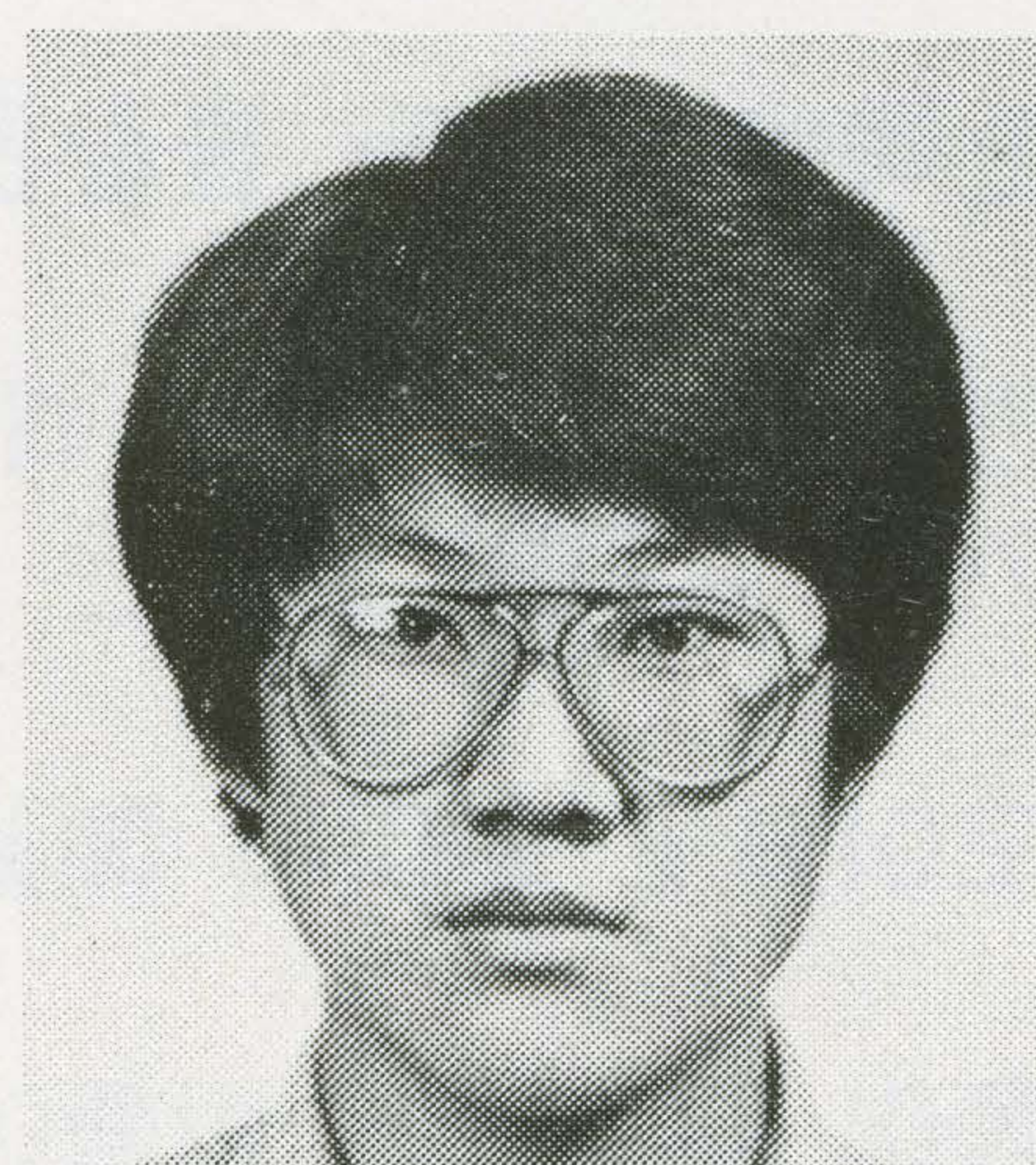
이 경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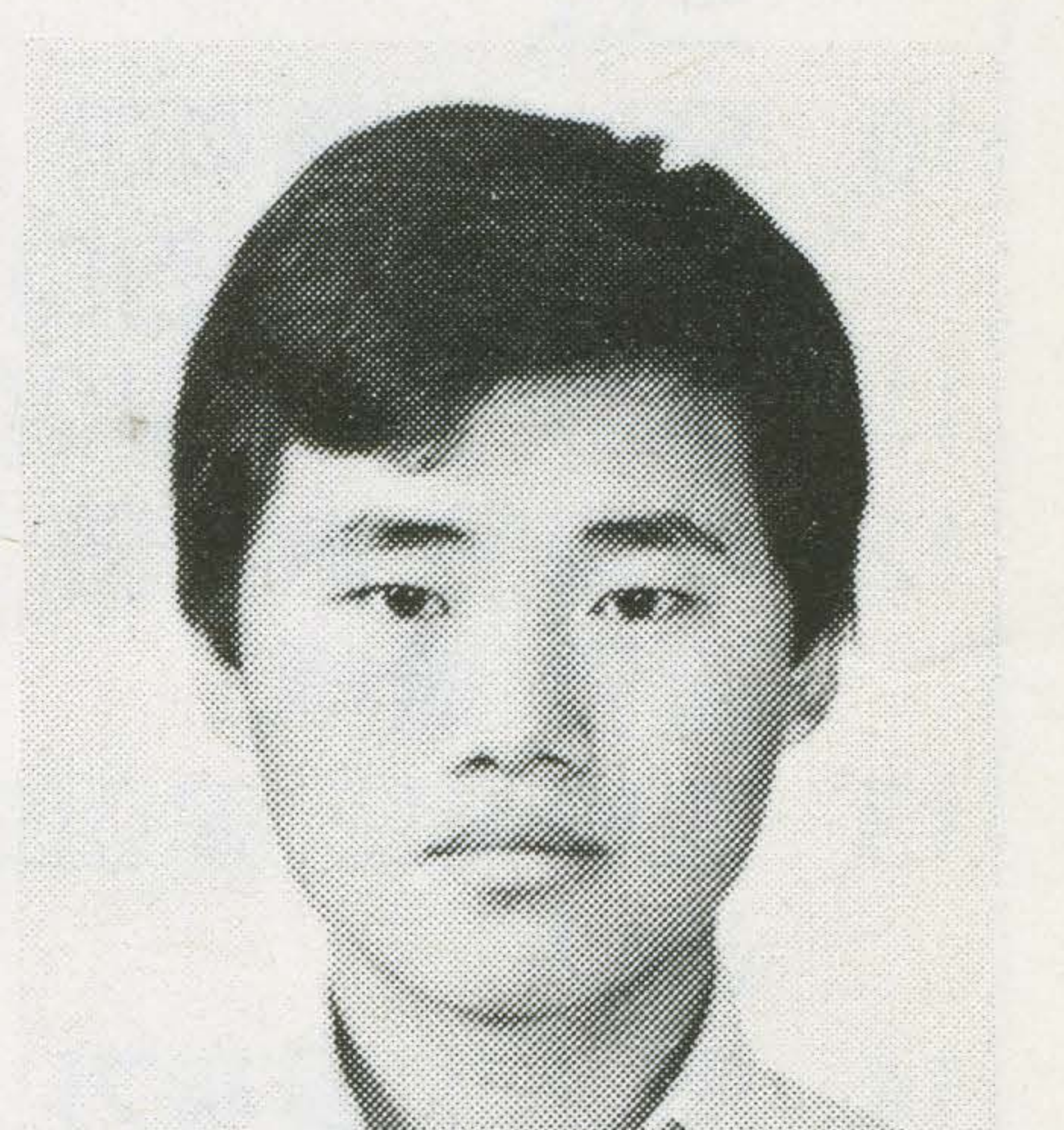
강 승 범



이 창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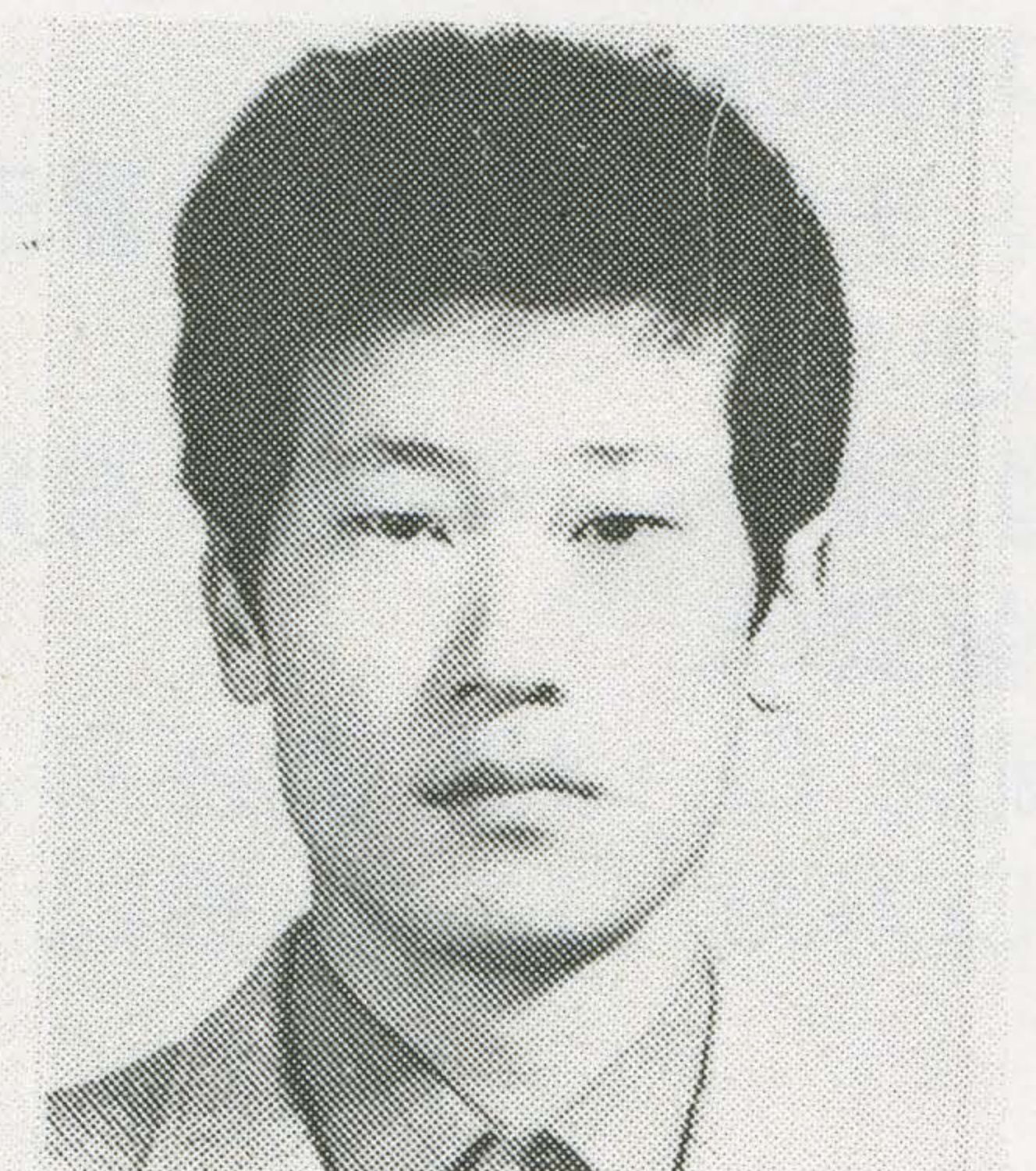
박 현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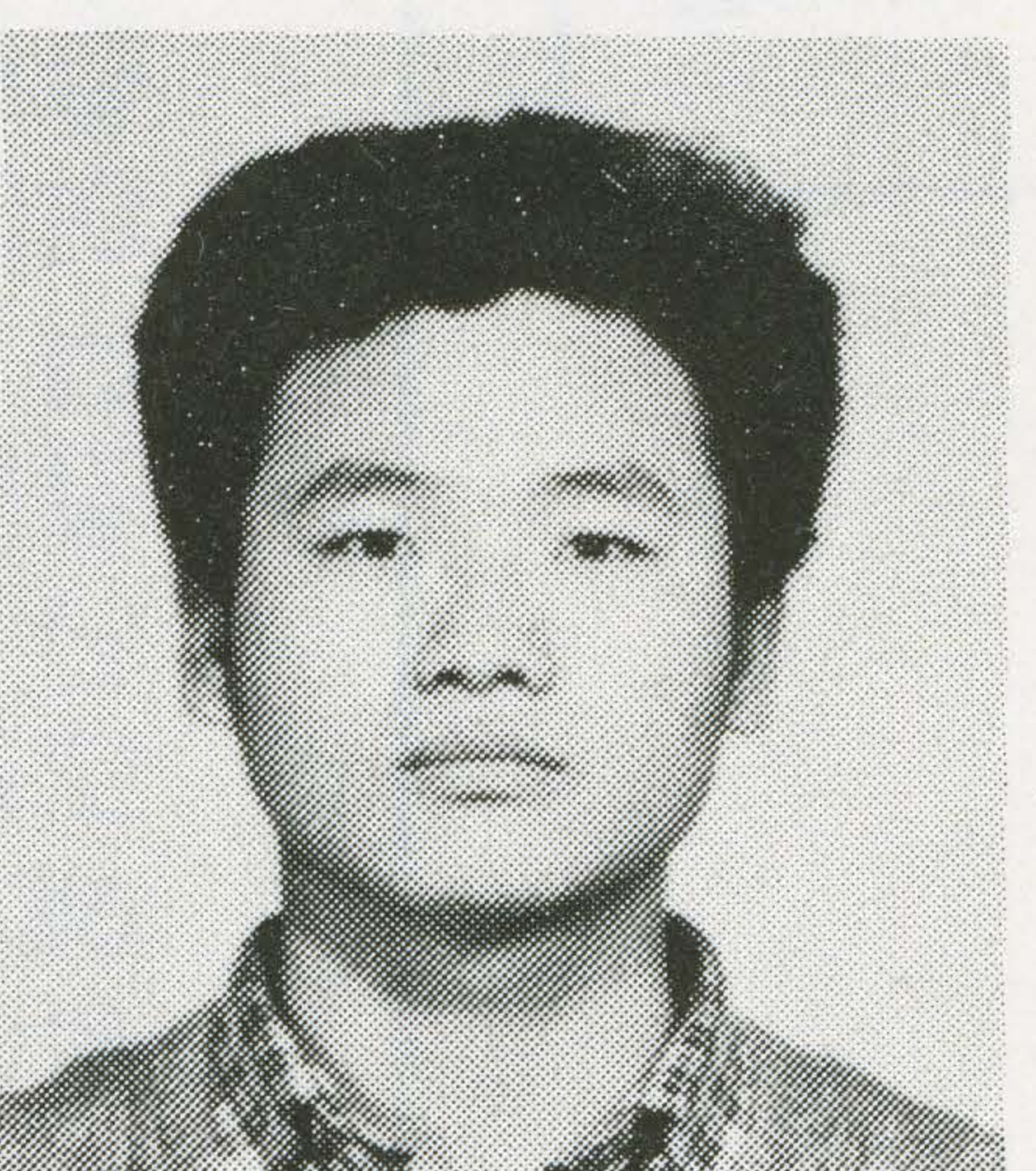
김 용 태



이 승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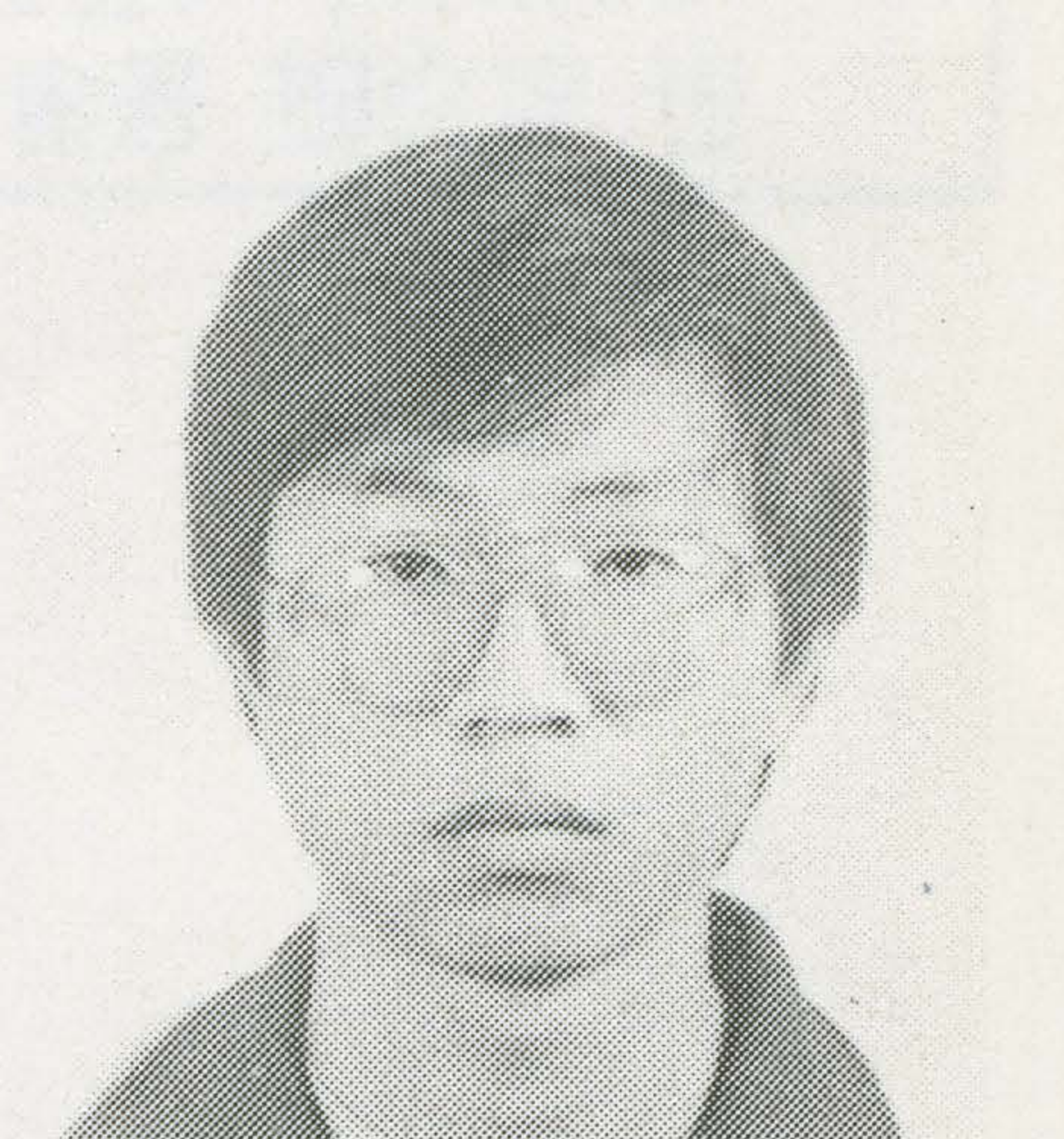
박 정 일



이 재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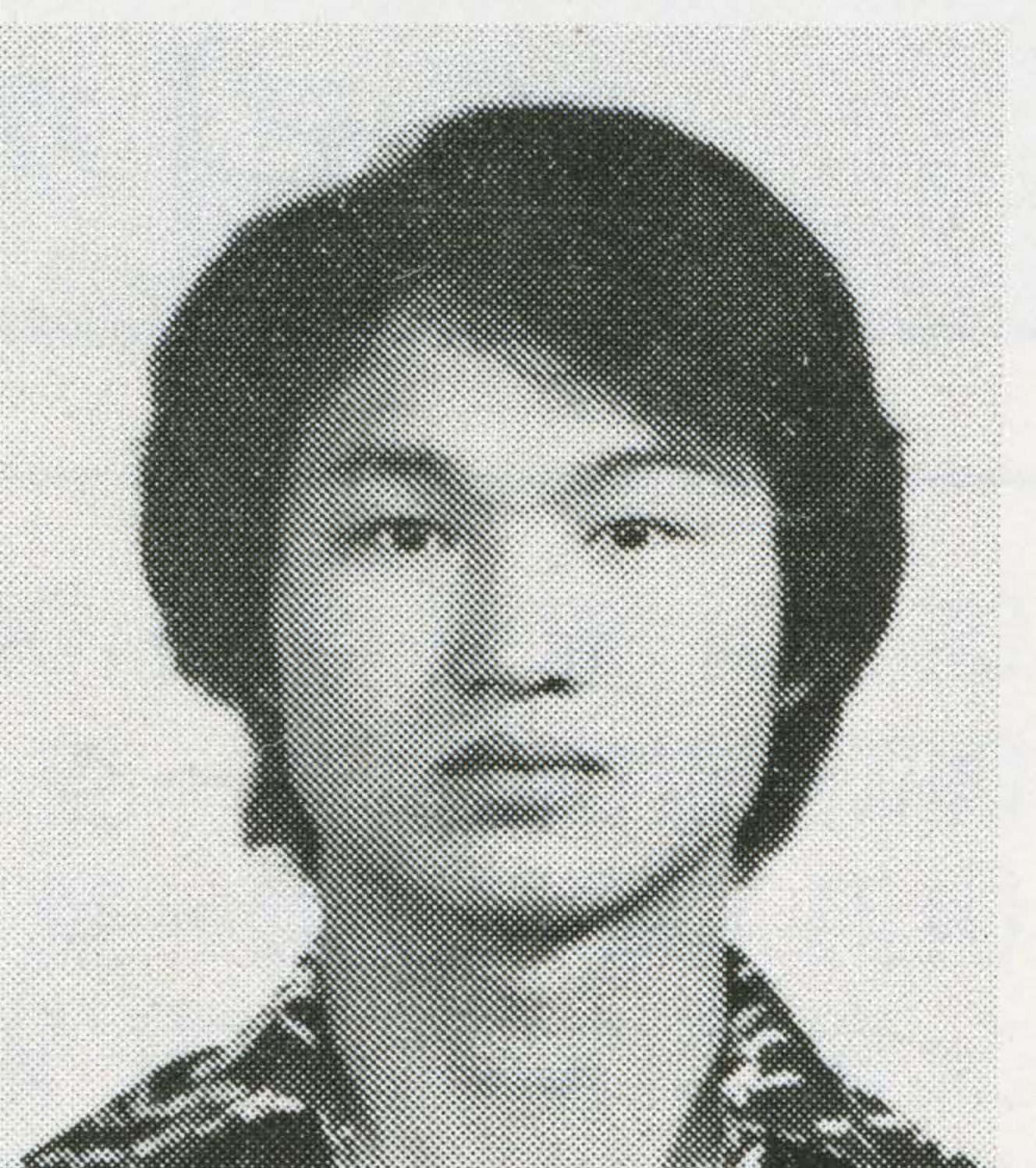
정 윤 조



성 인 호



이 성 렬



이 진 생



이 은 미



방 인 근

종자심기

(뒷소리) 에헤 에헤 에헤야 어어이어-야 어러름마
동기둥둥 내사랑아

1. 심어보세 심어보세 조도 심으고 수수도 심어보
자.
2. 콩도 심으고 팥도 심으고 오곡의 곡식을 다심어
보세.
3. 김을 메세 김을 메어 보세 김을 메면서 오곡의
곡식을 가꾸어 보세.
4. 낮에는 김도메고 소도 먹이면서 꿀베어 보세.
5. 밤이면 새끼도 꼬고 신도 삼아서 신어보자.
6. 콩타작 팥타작 오곡의 타작을 다해도 정든님의
반타작을 나는 못하겠네.
7. 바람 광풍아 불지말어라 송풍낙엽이 다떨어진다.
8. 울타리 밖에는 꿀베는 저총각 오이하나 받아잡
고 꿀베러 가게.
9. 받으라는 오이는 아니받고 요내 손목만 덩싹 쥐
느냐.
10. 요놈에 총각아 내손목을 놓아라 물같은 손목이
다 걸그러 진다.
11. 해가 가고 달이 가면 사람의 머리는 백발이 온다.
12. 사람은 늙으면 보기가 싫지만 호박은 늙으면 빛
깔만 좋네.
13. 호박꽃도 꽃이요 오이꽃도 꽃이지 메꽃만 꽃이
라나.
14. 뒷나리 골짜기 초목이 무성한데 밤중에 울닭이
대낮에만 운다.
15. 시어머니 죽은건 갓투리 봉에다 씻는지 저녁밥
만 먹으면 동술밭으로 간다.

김매기

(뒷소리) 에헤야 에헤-이야 에헤이-야 섬마나 섬
섬 내 사랑아.

1. 김매러 가세 김매러 가세 사리찬 밭으로 김매러
가세.
- 20 낮에는 김도 매고 소도 먹이면서 꿀베어 보세.
3. 선들선들 저 느티나무 농민을 따라서 선경자라.
4. 늦어가네 늦어가네 점심참수가 늦어가네.
5. 점심참수 늦단 말 말고 요내 손목을 곱놀려주네.
6. 정방 산성비탈이 길로 알갭은 처녀가 앙금 쌀쌀
기네.
7. 철산봉 꼭대기에 실안개 돌더니 굶골 처녀가 난
봉이 났네.
8. 총각총각 유달은 저총각 열스물 중에도 유표가
나네.
9. 총각 아제비 오실줄알고 풀쌔를 담갔다가 물송
편 찢네.
10. 한가닥 두가닥 세 네가닥 풀 머리가 달수마다
정만든다.
11. 물레돌 아래 백감사 땡기 총각낭군 죽으면 대몽
상 감이라.
12. 멍살러오게 멍살러오게 나 시집간 동네로 멍살
러오게.
13. 나시집간 동네로 멍살러오면 나신던 버선에 볼
받아 줄라.
14. 너 신던 버선에 볼받아주면 종집게 색경은 내담
당하마.
15. 종집게 색경은 내담당할테니 이마나 눈썹을 반
달로 지워라.
16. 이마나 눈썹을 지울줄 몰라 걸눈썹 제하고 속눈
썹 뽑았네.
17. 걸눈썹 제하고 속눈썹 뽑았더니 아이구 쓰러서
난 못살겠네.
18. 오늘해도 다 내려 갔는지 산등마다 그늘이 왔네.
19. 해가 다가서 그늘이 왔나 산이 높아서 그늘이
왔네.

산 염 불

(뒷소리) 에헤야 에헤야-미-타 에헤야 염불이라.

1. 서산낙조에 떨어지는 해는 내일 아침 다시 돋으
련만 황천길이 얼마나 먼지 한번 가신 님은 소
식이 없네.
2. 산에 올라 옥을 캐서 들고보니 산옥이라.
3. 이산 저산 양산중에 울고나니 곡산이라.
4. 산천초목은 나날이 젊어가고 우리 인생 늙어간
다.
5. 산에 올라 굽어보니 높고 얇은 평산이라.
6. 새벽 종달새는 지저귀 울더니 초승명월이 뚜렷
하다.
7. 해가 가고 달이 가면 사람의 머리는 백발이 온다.
8. 학도 뜨고 봉도 뗏는데 강산 두름이 높이 뗏네.

도리깨질

(뒷소리) 에헤이 방호 에라 에라 방-호
에다 받아라 방-호
여기 때려라 방-호
노랑 다발이 여기 있네 우-헤
어르라 어르라 때려라 때려라.

1. 동삼석달 놓고 나니 소만절기가 더 좋구나.
2. 소만절기 받을 갈아 오곡의 곡식을 다 심어놓니
삼사월이 되었구나.
3. 김을 매러 나가 보세 한불 두불 세 네불 매고나
니 오유월이 되었구나.
4. 육칠월이 되고보니 방치같은 조이삭이 고개넘씩
페였구나.
5. 칠팔월이 되고 보니 누런 당알이 들었구나
새나 쫓으러 나가보세.
6. 예가 쫓으면 저기가 앓고 저기가 쫓으면 여기와
았네.